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의회

2024. 12. 20.(금)

이천시의회 본회의장

시 정 질 문

- 제250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

이 천 시 의 회

목 차

김 재 국 의원	9
서 학 원 의원	21
김 재 현 의원	39
박 노 희 의원	59
김 하 식 의원	67
박 준 하 의원	81
임 진 모 의원	95
송 옥 란 의원	109

의원별 시정질문 목록

■ 질문 의원수: 8명 ■ 질문 수: 57건

의원명	계	질문명	비고
김재국	6	이천신안실크밸리 아파트 주변환경 개선 대책 마련	
		분수대오거리 주차문제 대책	
		지방보조사업 운영 개선	
		초고층 아파트 옥상에 지능형 CCTV 설치	
		안흥동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확장 및 개설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 개선	
서학원 11	11	관내 군부대와 협력을 통한 이천시의 발전 방향	
		이천시 공공개발의 필요성	
		공무원 비상근무의 개선방향	
		신둔도예촌역 주차 대책 마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보조금 재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계획	
		도자기 전통가마 보존을 위한 대책 마련	
		이천시 학생통합형 버스 운영 도입	
		이천시 소아 의료 공백의 대안	
		이천시 도자기 둘레길 조성을 통한 관광 플랫폼 개발 필요	
		불필요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부담 우려	

의원명	계	질문명	비고
김재현	13	중리택지지구 조성에 따른 중리동의 인력 추가 배치 운영 방안	
		중리동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	
		지중화 사업 후 설치된 전선 지중화 박스의 재정비	
		불법 전단지 배포에 대한 강력한 단속 요청	
		공공산후조리원 도입의 필요성	
		편법 방지를 통한 올바른 여성기업 지원	
		마장면 공용주차장 조성	
		마장면 '첨단배후산업단지 조성' 및 반도체산업 발전 방안	
		공공형 실내놀이터 건립	
		이천시립 추모의 집 진입로 확장공사의 필요성	
		마장 양촌사거리에서 관리(도척)방향 우회전 차선 연장	
		이천시 조각품 관리와 문화적 가치 증진 방안	
		건전한 축제예산 운용 촉구	
박노희	2	하천부지 점용허가 관리 철저	
		설봉공원 관광안내소 활용 방안	
김하식	4	이천시 발전 및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재정투자 확대	
		이천시 축제·행사 개최를 위한 최적의 장소로 진리뜰 개발 제안	
		효양근린공원 조성	
		축산악취 해결	

의원명	계	질문내용비고	
박준하	5	이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우리 시의 대응	
		민관협력 투자금융 설치에 관한 제안	
		이천시 균형발전과 균형발전기금 설치 계획	
		재정운용 중 몇 가지 항목에 대한 질문	
임진모	4	이천시 공공형 골프장 건립	
		이천아트홀 대관 체계 개선 및 시민만족도 향상 방안	
		시청 직원주차장 및 기숙사 확충	
		교육경쟁력 강화 및 인재육성 지원 사업의 필요성	
송옥란	12	도시재생사업 사후 관리 필요성	
		이천쌀 수출 확대 전략 필요성	
		무촌리 근린공원조성사업 재검토 필요성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의 필요성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 및 치료 지원 확대	
		민간위탁 성과평가 방식 개선	
		업무일몰제 활성화 방안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미래 세대를 위한 영유아·어린이 문화 콘텐츠 확대 필요성	
		이천시 관내 동물보호센터 설립	
		이천시 6차 산업 활성화 방안	
		본예산 제로베이스 편성방식 도입 필요성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의회

2024. 12. 20.(금)

제 3차 본회의

시 정 질 문

이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 재 국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국입니다.

지난 11월에 발생한 대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 농가에 대해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신 김경희 시장님, 이천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과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장이 곧 답이다’ 라는 생각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민원 현장에서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소통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민하였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신안실크밸리 아파트 주변환경 개선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8월 6일에 이천시의회 브리핑실에서 이천신안실크밸리 입주예정자대표회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신안건설 관계자, 이천시청 주택과, 건설과 등 관련부서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입주예정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천신안실크밸리는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에 위치한 아파트로 11개동, 880세대 규모로 입주예정자들은 시행 초기 불거진 시공 논란과 도로확충, 교육여건, 주변 주거 환경 등 공사 중 발생한 민원으로 마음고생이 많았으며, 또한 계획되었던 입주예정일이 연기되어 또 한 번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신안실크밸리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입주민들에게 집이란 삶의 공간이자 몸과 마음의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이천시민이 집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아파트 하자 처리, 교통, 주변 주거 환경 개선 등이 조속히 이행되어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먼저, 신안실크벨리 입주 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하자 민원에 대해 건설사에서 빠르게 처리하고 완료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 앞 도로 등 국지도 70호선 추진 상황과 언제쯤 개통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안실크벨리 아파트에서 2025년 6월 준공 예정인 이천 북부권 체육공원으로 이어지는 도로에 대한 공사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입주민이 안심하고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아파트 안전성 및 품질검사결과에 대한 홍보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수대오거리 주차문제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분수대오거리 교통광장 및 경관개선사업 준공식과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분수대오거리가 시민을 위한 광장으로 활용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당장 주차면수 59대의 공영주차장 부재에 따른 상인들의 피해와 시민들의 불편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더욱이 분수대오거리의 교통광장 및 경관개선사업 전에 주차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했던 삼원주차장 부지 매입 건도 철회하였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천시는 뒤늦게 분수대오거리 인근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포니공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창전동에 위치한 어린이공원인 ‘심포니 공원’은 분수대오거리에서 200미터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며, 광장사업 완료 후에 대체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사후약방문 식의 대책으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심포니 공원을 주차장으로 조성한다고 해도 몇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임시 주차장으로 마련된 이천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은 마트 이용객의 주차로 인해 충분한 주차 공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서희청소년문화센터 공영주차장은 분수대오거리에서 400미터 이상 떨어져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분수대오거리의 공영주차장 부재로 발생하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보조사업 운영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천시에서도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가 ‘미흡’ 또는 ‘매우 미흡’ 일 경우 지방보조금 예산 삭감, 사업 폐지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2023년도에 집행된 성과평가 대상 201개 사업 중 23개(11.4%) 사업 폐지, 1개(0.5%) 사업을 지원 중단하였고, 유지 필요성 평가 대상 사업 255개 중 18개(7.1%) 사업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기한 내에 정산 보고가 완료되지 않은 채 보조금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이 있어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지방보조사업을 운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며, 지방보조사업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보조사업 해당부서에서는 보조금이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실무교육 운영과 보조금 집행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소관부서의 승인 절차가 필히 이루어져야 하며, 보조금 정산 점검 및 보고 시에 사업 운영의 산출기초를 포함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계획 대비 사업결과에 대한 검토, 정산서류의 전반적 점검 등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고층 아파트 옥상에 지능형 CCTV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서는 주택밀집지역,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공원, 등산로 등 방범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노후화된 CCTV를 지능형 CCTV로 교체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현재 이천시에 설치된 CCTV는 총 3,587대로, 이중 약 30%인 1,085대가 지능형 CCTV입니다.

지능형 CCTV는 방범, 불법 주정차 단속, 도로 정보 수집, 교통제어, 화재감시, 쓰레기 투기 단속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실종자 고속 검색 시스템 운영, 스마트 경로당 시스템 구축, 학교 안전 강화 등으로 사용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천 전역에서 발생 가능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해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하고, 각종 범죄, 사건, 사고로부터 이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높은 건물이 많은 도심의 경우에는 낮은 위치에 설치된 CCTV는 촬영영역이 좁아 활용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조성된 초고층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다면 낮은 곳에 설치된 CCTV로 확인 또는 대처하기 어려운 사건, 사고를 파악할 수 있으며 자연재난을 비롯한 화재 등 사회재난까지 신속한 위치 파악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초고층 아파트 옥상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면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시민이 안전한 스마트시티 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흥동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확장 및 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흥동 상업지구는 롯데캐슬 1·2차, 코아루 휴티스 등이 위치해 있으며, 현재 센트레빌 레이크뷰, 빌리브 어바인시티, 롯데캐슬 3차, 서희 스타힐스 스카이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상업지구에 준초고층 아파트 건설로 인구 유입과 교통량 증가, 이에 따른 교통난,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도 시정질의를 통해 이천시 안흥동 상업지구의 교통혼잡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고, 안흥동 상업지구 동측 도시계획도로(중로2-69호선) 신설계획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안흥동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확장 및 개설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점차적으로 준초고층 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가 시작되면 교통체증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안흥동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시장님께서서는 현재 안흥동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확장 및 개설에 대한 추진 상황과 진행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공사 착공 및 준공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올해 4월에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아이봄’을 개소하여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부터 초등학생, 0세부터 12세 아이가 있는 이천시 주소를 둔 부모라면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다’고 누구나 돌봄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장애아동을 둔 부모가 센터에 이용 문의를 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돌봄 이용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돌봄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에게는 이용이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센터는 335㎡ 면적 규모로 영아실과 유아실, 플레이룸, 학습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시간대 최대 35명 수용이 가능합니다. 개소 후 12월 5일 기준 이용자는 총 2,697명으로 월평균 33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센터장 1명, 돌봄교사 8명 등 총 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센터장 등이 장애아동을 돌보기도 한다고 하나, 장애아동을 전담하는 교사를 따로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된다고 합니다.

누구나 돌봄이라는 시설의 설립 취지와 달리 장애아동의 이용에는 제한이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로 느껴졌습니다.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아이봄이 처음 개소되었고 운영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하루빨리 보완하는 등 아이봄 운영이 잘 정착된다면, 이천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장애아동 전담 교실 운영, 장애아동 전담 교사 인력 증원과 센터 추가 개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의회

2024. 12. 20.(금)
제 3차 본회의

시 정 질 문

이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서 학 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7기를 거쳐 민선 8기의 의정활동을 하며, 시민들의
고충을 듣고 불편한 생활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춘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 의원이 고민하였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군부대와 협력을 통한 이천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천 관내에는 7군단, 육군항공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등 다수의 군부대가 있고, 규모와 전문성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말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관내 군부대와 연계한 군문화 축제를 관광전략으로 삼고, 첨단 방위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미래 전략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지난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SOCKOR(주한 미 특수작전사령부)와 육군특수전사령부는 ‘2024 특수전사령부 week korea’ 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군의 최정예 핵심인 특전사의 역할 확대와 능력 확충 및 미래 특수작전개념 구현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하이라이트는 70여 개의 방산업체가 참여해 감시·화력장비, 기동·침투장비, 드론·대드론, 통신장비 등을 선보인 ‘특수작전 장비·물자 전시회’로 주목할 만한 행사였습니다.

이천시에서는 이번 행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한 70여 개 이상의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이천시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수작전 장비·물자 전시회’는 이천시 주간 행사나 읍·면·동 행사 일정에도 포함되지 않은 채, 일부 지역 주민만이 참석하는 소규모 행사로 종료되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사실상 하이닉스 증설은 어려운 상황이며,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천시 입장에서는 군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공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천시 경강선은 2016년 9월 24일 개통 이후 교통편의 증대, 지역 개발 촉진, 인구 유입 증가 등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이천역, 부발역, 신둔역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첨단산업클러스터, 문화관광 중심 개발계획은 개통 후 8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흡한 실정입니다.

역세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주변 인프라 구축 및 개발 속도가 더딘 이유는 민간 주도의 개발 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민선 7기부터 역세권의 공공개발을 주장해 왔으나, 현재 민간개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개발 이익 사유화 및 단기적 시각의 개발로 장기적인 도시계획에 차질과 개발사업 실행 여부에 대해 우려됩니다.

이천시와 유사한 여주시의 사례를 보면 오래전부터 적극적인 공공 주도의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여 여주역세권, 교통 1·2·3지구, 능서역세권, 가남 태평지구 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택과 인프라를 제공하며 인근 도시의 인구를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이천시는 인구 약 1만 명 증가를 이끈 마장택지 개발의 성공과 중리택지 개발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공주택 1,600세대 분양 성공 이후, GTX 연결 등 교통 호재에도 불구하고 신둔역세권과 부발역세권은 아직 경기도 심의 중으로 더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인프라 부족과 고분양가 아파트의 대량 공급으로 현재 약 1천 세대의 미분양 공공주택이 발생하여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천시가 중리택지, 마장택지와 같은 공공개발 사업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 양질의 주택과 인프라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분양가를 책정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여 인구 30만 이상의 계획도시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비상근무의 개선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천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이천시 공무원들은 각종 비상근무에 투입되게 됩니다.

2024년 기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 결과 총 11회, 26일 동안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었으며, 약 870명의 공무원이 최소 3시간에서 최대 10시간 이상 비상근무에 동원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여름철 비상근무에 대한 수치이며, 이 외에도 동절기 대책, 폭염 대책, 산불 방지 대책 등 각종 비상근무에 공무원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타까운 안전사고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 폭우 시 춘천 의암호 인공 수초섬에서 공무원이 작업 중 사고를 당했으며, 동작구에서는 폭우로 쓰러진 가로수를 정리하던 공무원이 감전 사고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한 지침 및 매뉴얼 마련, 보호 장비 지급 등 안전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근무 투입 및 상황 발생까지의 대기 시간이 지나치게 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이어질 뿐 아니라, 현업에 복귀해야 할 공무원들의 피로도를 가중시켜 담당 업무의 공백 및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안전대책본부의 재난 대책 수립 계획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비상근무 방식 및 근무 인원 조정 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신둔도예촌역 주차 대책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0년 신둔도예촌역의 심각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역 앞 도로의 노상 주차장 설치를 적극적으로 건의하였고, 임시 주차장 조성에 반대하는 토지주들을 직접 설득하여 주차 문제 해결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신둔도예촌역의 주차 수용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역 앞 도로 가장자리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만연하며, 임시 주차장은 언제 사용이 중단될지 모르는 불안정성을 안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2년부터 진행 중인 남정~도암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공사 완료 후 교통량 증가로 인해 현재 주차 공간으로 이용되는 역 앞 도로 가장자리가 도로로 편입되면 신둔도예촌역의 주차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신둔도예촌역의 주차 문제 해결 및 접근성 개선, 그리고 역세권 개발 촉진을 위해 조속히 대규모 공영 주차장 건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보조금 재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5분 발언을 통해 이천아트홀 앞 잔디광장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즉 김복동 할머니 동상 앞에서 개최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서 담당 부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가 국가적 차원에서 주관되고 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곳은 8곳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제12조는 이에 필요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천시에는 「이천시 일제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행사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타 지자체와의 행사 개최 현황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서의 검토 의견과는 달리, 범국가적 차원에서 행사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이천시에 별도로 추모하는 행사들이 존재합니다.

본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 또한 이러한 행사들과 동일한 중요성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구 감소는 정부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과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과 지원이 시행되고 있으며, 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유출을 방지하는 것 또한 중요한 방안입니다.

이천시는 하이닉스와 같은 양질의 일자리와 영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가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약 10년 넘게 인구수가 20만 명에서 23만 명 사이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천시의 인구 유입과 발전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정책이 아닌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천시 도시지역에서는 전원주택 단지 및 개별 상가들이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개발은 교통 체증, 환경 문제 발생, 도시 경관 훼손 등의 이천시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발 가능성이 높은 도시지역 중 특히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 대해 선제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도시계획도로 선을 지정하는 등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이천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자기 전통 가마 보존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천 도자기는 조선시대부터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수도 서울 인근에서 양질의 흙, 땔감, 유약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이천이 한국 도자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천은 ‘이천도자기축제’와 ‘경기도자비엔날레’ 등의 축제와 더불어 에스파크, 사기막골도예촌 등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도자 중심지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 전통 도예가 재정립되던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천에서 활발히 사용되었던 전통 가마들이 소실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신문면 수광리에 위치한 청운요를 들 수 있습니다. 고(故) 이준희 도예가가 해강 유근형 도예가로부터 인수한 청운요는 1960년대부터 활발하게 도자기를 구워 온 역사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전통 가마입니다. 하지만 현재 토지 소유권 문제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소실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역사적 보존 가치가 뛰어나면서도 불구하고 토지 및 소유권 문제로 인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소실 위기에 놓인 전통 가마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천시가 전통 가마 보전 계획을 수립하고, 현황 조사와
정비를 통해 이러한 유산을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것은
이천 도자기의 전통성을 계승하고 관광 도시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학생통합형 버스 운영 도입에 대한 질문
입니다.

이천 시내권에는 총 10개의 중·고등학교가 위치하며,
약 6,9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으로 이는 전체 중·고등학생의
56%에 해당합니다.

시내권 학생들과 달리 시외권 학생들은 여전히 통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 제가 신둔면 지식리에서
이천중학교까지 대중교통으로 40분이나 걸려 통학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상황은 전혀 개선
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승용차로는 10여 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경유와 환승을 거치며 힘겹게 통학하고 있습니다.

입시를 앞두고 1분 1초가 아쉬운 학생들에게 40분이라는 통학 시간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천시 남부권 학생들의 통학 환경은 더욱 열악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외권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개선하고, 도농 간 교육 환경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각 읍·면별 통학 버스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이천 시외 권역에서 시내 권으로 운행되는 학생 통학버스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학생들의 통학 편의와 안전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교육 불균형 해소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소아 의료 공백의 대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이 근무하며 월평균 약 600명의 환자를 진료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18일 해당 전문의의 퇴사 이후 현재까지 후임이 채용되지 않아, 이천시에서는 아이들이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현재 의료계는 소아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와 의료 소송 위험 증가 등의 이유로 소아청소년과 전공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아 의료 인프라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천시 또한 2023년부터 시비 약 3억 원을 투입하여 17시 30분부터 24시까지 야간 진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천시에 아이들이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사실은 이천시 의료 인프라의 심각한 공백을 의미하며, 무엇보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채용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더불어 이천병원에는 소아 전용 입원실이 없어 일반 병실을 소아 병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나이가 있는 소아는 입원이 가능하나, 어린 소아의 경우 사실상 입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아 전용 입원실 마련을 위한 시설비 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천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채용을 위한 지원 방향과 소아전용 입원실 지원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자기 둘레길 조성을 통한 관광 플랫폼 개발 필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케이블 카’, ‘스카이 워크’ 및 ‘미디어 파사드’와 같은 천편일률적인 형태의 관광 인프라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천시가 선도적으로 지역의 문화나 특색을 살린 관광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은 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천은 깊은 뿌리의 역사를 가진 도시로, 다양한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1978년에 개설된 사기막골도예촌은 흙으로 사기그릇을 만드는 골짜기라는 의미를 가지며, 국가에서 인정해 준 전통시장으로서 도자기라는 단일 품목으로 이루어진 전국 유일한 전통시장입니다.

또한, 설봉산은 이천의 진산이며 이천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곳에 위치한 설봉산성과 이천향교는 각각 국가지정 유산과 경기도지정 유형유산으로 등록될 만큼 역사적 가치가 있습니다.

기존에 두 곳을 연결하는 산길을 ‘도자기 둘레길’이라는 테마를 설정하여 본격적으로 조성하고, 원도심인 창전동과 관고동으로 이어지게 하여, 지역 특색을 잘 살린 먹거리 탐방을 추가한다면 관광객들에게 이천만의 특별한 맛과 멋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천시만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스토리 있는 관광 플랫폼을 기획함으로써, 우리 이천시에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서는 이천시의 지역 문화유산과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관광산업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불필요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부담 우려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5년도 이천시 본예산안 세입 목록에는 SOC 사업 추진을 위한 2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기준으로 이천시의 자주재원은 약 2,06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에는 2024년 말 기준 2,633억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해당 기금의 지출 계획은 대부분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결산 잉여금은 2019년 5,632억 원에서 감소 추세임에도 2023년 결산 기준 4,873억 원에 달하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2,131억 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이천시 2025년 본예산안은 20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해당 지방채 발행 시 약 5년 동안 지출해야 하는 이자만 40억 원이 넘습니다.

적극적인 재정사업 지출 때문에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것이라면 이천시의 2025년 본예산안을 통하여 앞서 말씀드린 재원이 모두 소진되어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야 할 텐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 본예산안 총액은 1조 3,652억원 규모로, 2023년 세입결산액 1조 8,812억원의 72.54%에 불과합니다.

본예산안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 집행할 계획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지표상 현재 이천시의 재정여력이 계획된 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40억 원이 넘는 이자를 지출하면서까지 급하게 2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이유를 본 의원은 알 수 없습니다.

이에, 지방채 발행의 불가피성과 시급성, 그리고 이천시 중장기 재정 운영 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의회

2024. 12. 20.(금)

제 3차 본회의

시 정 질 문

이천시의회 부의장

김 재 현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이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경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박명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천시의회 의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 자리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부의장 김재현입니다.

올 한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이천시의 각 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현장에서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와 필요를 직접 듣고 체험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천시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하며, 동시에 몇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중리택지지구 구성에 따른 중리동의 인력 추가 배치 운영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리동은 도농복합지역으로, 농촌지역의 면적이 도시지역보다 넓어 동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농촌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24년도 1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접수된 토목 민원 건수만 100건이 넘으며, 신문고와 수시로 들어오는 전화 민원은 수치화 하기도 어렵습니다. 현재 중리동의 토목업무는 일반적인 동 지역에 배정된 인원에 따라, 시설직 공무원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리동은 다른 동 지역보다 면적이 약 2배 넓고, 대다수가 농촌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적인 동 지역에 적용되는 일률적인 인원 배정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중리동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시설 직렬의 추가 배치와 산업팀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또한, 중리택지지구 준공에 따라 2년 내 4,468세대가 증가할 예정이며, 이천역 힐스테이트 1,822세대를 포함해 총 약 6,000세대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시와 농촌 지역을 균형 있게 지원하기 위해 인력 증원이 필요합니다.

중리택지지구 준공 완료 이전에 미리 추가 인력을 확보하는 등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원활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운용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리동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중리동의 인구는 2024년 10월 기준 약 1만 6천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중리동에는 모든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도서관이 없어 주민들의 문화적 필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립어린이도서관과 시청 내 작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들 시설은 규모와 기능 면에서 제한적입니다.

더욱이, 중리동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창전동에 위치한 이천시립도서관까지 가야 합니다. 도서관까지는 도보로 40분 이상 소요되며, 산 중턱에 있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향후 중리동은 중리 택지지구 아파트와 이천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통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직주 인구만 1만 5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서관은 교육과 문화적 수요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따라서 중리 택지지구 내 공공도서관의 건립을 요청드리며, 계속해서 제기되는 중리동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중화 사업 후 설치된 전선 지중화 박스의 재정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의 민선 8기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도심지 전선 지중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먼저 서희로 구간의 전주 철거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서희동상오거리에서 중앙교사거리를 연결하는 구간에서 난립한 전선과 전주를 정리함으로써 도시미관이 개선되었으며,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중화 작업 이후 설치되는 지중화 박스에 불법 스티커형 광고물이 부착되고, 접착제 부분이 먼지와 뒤엉켜 남아있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외관상 흉물로 보인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중화박스 주변은 쓰레기가 버려지는 장소로 인식되어 주변 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아있는 지중화 박스에 대한 설치 현황을 조사하고 새롭게 디자인하는 등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대구시 중구 동인동 가로변의

한 지중화 박스는 강화유리 재질의 산뜻한 광고판으로 탈바꿈했으며, 경북 김천지역에서는 지역특산물인 포도가 디자인되어 시각적 아름다움은 물론 특산물 홍보에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서는 이와같이 지중화 박스 및 주변 일대를 재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전단지 배포에 대한 강력한 단속 요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홍보 전단지의 대부분은 불법으로 배포된 것입니다. 「옥외광고물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전단지를 배포하기 전에 관할 읍면동에 신고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반드시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배부해야 합니다. 심사 절차는 까다롭지 않지만, 허가 기간이 짧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신고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도장이 찍히지 않은 광고지를 배포하다 적발될 시, 「옥외광고물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구조물, 자동차 등에 광고물을 붙이거나 끼우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 전단지와 관련한 처벌 근거가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버려진 불법 전단지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환경을 오염시키며, 심지어 교통신호기 등에 부착되는 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과 위험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경고나 계도 수준에 그쳐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더욱 강력한 법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불법 전단지 투척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이 병행될 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 전단지 투척을 근절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보행 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산후조리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의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산후조리원에 대한 선호는 78.1%를 기록하였으며, 이용률은 81.2%로 증가하였습니다.

산후조리는 출산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 과정인 만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높은 비용 부담과 시설 부족 문제로 인해 많은 산모들이 산후조리를 포기하거나, 원정 산후조리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경기도의 사업에 따라 이천시 역시 50만 원의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의 평균 2주 이용료는 약 346만 원에 달합니다. 지원금만으로는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더욱이, 이천시는 합계 출생률이 0.85명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은 단 2곳뿐이며 모두 민간 시설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제안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평균 이용료는 154만 원으로 훨씬 저렴하여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주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서 저렴한 비용에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부대시설을 제공하고 있어, 산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 성과는 전국적으로 주목받아 2022년 한 해에만 20개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위해 여주시를 방문했습니다.

산모들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선호와 그 긍정적 효과를 바탕으로, 이천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계실 것이라 믿으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편법 방지를 통한 올바른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9년에 제정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기업과 여성 창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덕분에 여성기업의 여성 근로자 고용률은 남성 기업에 비해 2.3배 높으며, 여성들의 경제적 참여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격려하기 위해 여성 소유 및 경영 기업에게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금융 우대 조건,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특히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은 여성기업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혜택입니다. 이러한 ‘여성기업 수의계약 제도’는 성별 불평등을 해소하고 여성기업의 발전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서류상으로만 여성 대표자를 두고 실질적인 경영은 남성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편법을 사용하여, 여성 기업에 주어져야 할 혜택을 부당하게 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편법으로 인해 정당한 남성 기업들이 역차별을 겪게 되며,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기업 지원 제도의 본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실제로 여성기업이 받아야 할 혜택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장면 공용주차장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장면 양촌리 아름수리아파트 옆에 위치한 휴먼빌 까사포레 아파트는 금년에 338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주차장 시설은 479대 규모로, 세대당 1.41대의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수에 비해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일대 이면도로가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법 주정차와 교통 혼잡, 보행자의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파트가 법정 주차대수를 충족하더라도, 세대당 1.5대 이하일 경우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는 1996년에 정해진 법정 주차대수 기준이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차량 보유 대수가 급증하는 추세 속에서 기존의 기준으로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장면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용주차장 조성을 요청드립니다. 공용주차장이 마련되면 주민들은 주차 문제로 인한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가 감소하고 교통 혼잡도 완화될 것입니다. 또한, 공용주차장이 제공하는 안전한 주차 공간은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장님께서서는 마장면에 공용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주차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은 마장면 ‘첨단배후산업단지 조성’ 및 반도체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서는 올해 1월 초 정부의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하시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용인시와 이천시를 연계할 수 있는 마장면에 50만㎡ 규모의 첨단배후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을 건의 하셨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미래 성장 산업으로,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정부는 622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 남부의 많은 지자체들이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에 발맞추어 반도체 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반도체 전문인재 양성, 반도체기업 육성을 위한 공모 사업, 반도체기업협의체 및 반도체 자문단의 운영, 용인시와의 협력사업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장님께서도 향후 이천시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특히, 용인시와 이천시를 연계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외에, 추가적인 투자 유치 방안이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이들이 꿈을 키우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나 교사의 책임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정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이천시는 아이들을 위한 축제 프로그램과 서희 역사관, 경기도자미술관, 이천시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등에 체험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특색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적이고 체험 중심의 공간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방과 후나 주말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마음껏 뛰어놀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공간이 필요합니다. 놀 권리는 아동에게 있어 기본적인 권리이자,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지난 3월, 인근 양평군을 방문한 후, 이천시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인근 양평군의 ‘어린이 건강놀이터’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다양한 신체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환경을 함께 갖춘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그 어떤 관련된 계획이나 진행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구분된 적절한 놀이시설을 갖춘 공공형 실내 놀이터와 다양한 놀이시설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협력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아이들이 풍요롭고 건강한 환경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이들을 위한 복지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다면,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립 추모의 집 진입로 확장공사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효자원 장례식장에서 이천시립 추모의 집으로 이어지는 차도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로입니다. 특히 명절 기간에는 차량 이용이 급증하면서 도로의 혼잡도가 크게 높아져 본래의 교통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주요 원인은 차도의 구조에 있습니다. 해당 차도는 진출입 시 2차선 정도의 폭을 유지하나, 도로 중간에 400m 정도의 구간에서는 단일차선으로 폭이 좁아지고, 이후 다시 2차선으로 확장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들은 좁아지는 구간에서 상호 진입을 양보해야 하며, 양쪽에서 동시에 차량이 진입할 경우 병목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명절에는 추모의 집을 방문하려는 차량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교통정체와 혼잡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모의 집 내부 진출입로 확장공사를 실시하여 도로 전체가 일관된 2차선 형태를 유지하도록 개선하고, 차선 표시를 명확히 하여 차량 통행 방향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통행이 원활해지고, 운전자들의 혼란이 줄어들어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효자원 장례식장에서 이천시립 추모의 집으로 이어지는 차도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계획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장 양촌사거리에서 관리(도척)방향 우회전 차선 연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장 양촌사거리에서 42번국도(이천-양지) 도착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회전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우회전 차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차선의 길이가 짧아 우회전을 원하는 차량은 직진 차선의 모든 차량이 빠져나갈 때까지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구간은 아파트 단지와 가까워 입주민들의 이용이 많지만,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데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진차선과 우회전 차선이 동일한 차선에서 이용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통 체증이 발생하게 되어 출퇴근 시간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우회전 차선 길이를 연장하여 우회전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직진 차선과 우회전 차선이 충분히 분리되어 교통 흐름이 원활해지고, 시민들의 대기 시간이 단축되어 교통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장님께서서는 해당 구간의 교통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조각품 관리와 문화적 가치 증진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천은 뛰어난 예술적 가치를 지닌 수많은 조각품을 보유한 도시로, 이러한 작품들은 지역의 문화적 자산이자 시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러나 현재 조각품들은 제대로 된 보관 및 관리 체계 없이 26개소의 공공기관과 공원 등 여러 장소에 흩어져 있어, 그 예술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정한 주제나 테마 없이 분산 배치된 조각품들은 시민들에게 제대로 인식되지 않으며, 관리 부재로 인한 작품의 훼손 가능성을 높이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천국제조각 심포지엄 행사를 통해 조각품을 한데 모아 전시하는 시도는 있지만, 이는 단기적인 행사에 그치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활용 방안이 부족해 조각품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심포지엄 개최를 위한 재정은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지만, 조각품 관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조각 심포지엄 행사를 잠시 중단하고, 기존 행사에 투입된 예산을 활용하여 조각품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전시하거나, 공원에 조각품을 모아 '조각 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특히, 조각 공원을 조성할 경우 조각품의 가치를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고 나아가 이천이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잡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장님께서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계신다면,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건전한 축제예산 운용 촉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축제는 지역 발전과 주민 화합의 중요한 매개체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이천시의 경우 그 규모와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4년 이천시의 축제 예산은 세출예산 중 행사 및 축제경비 비율이 1.03%로, 경기도 내에서도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근 용인특례시보다 약 12억 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이천시 축제예산의 규모가 과도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더욱이, 보통교부세 세출 효율화를 위해 행사와 축제 비용을 절감하도록 마련된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도에서, 이천시는 올해 70억 원의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이는 과도한 축제예산 집행이 지방교부세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는 방증입니다.

따라서 이천시는 향후 축제예산 운용에서 더 철저한 분석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중복된 축제와 행사는 통합하거나 폐지하여 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민선 8기 들어 축제와 문화·예술 행사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규모와 예산 집행에 있어 보다 균형 잡힌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에, 축제 예산과 행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의회

2024. 12. 20.(금)

제 3차 본회의

시 정 질 문

이천시의회 의원

박 노 희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박노희 의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경청과 소통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생활
정치를 실천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천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시민의 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는 자리라
생각하며, 저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천부지 점용허가 관리 철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자체로부터 공유재산인 하천부지 사용을 위한 점용허가를 받은 뒤 이를 불법으로 임대한 사업자나 불법 전용 사실을 확인하고도 묵인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언론보도를 한 번 짚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점용 허가된 하천부지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실태에 대하여 자체 점검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하천부지 점용료가 적정하게 부과되고 있는지 체납되는 점용료는 없는지 등 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다 또는 과소 부과하는 사례와 체납 여부 등을 점검해서 점용료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점용허가 된 하천부지라고 해도 공공목적의 사업의 경우에는 공사가 가능해야 함에도 개인 사유지처럼 권리를 주장하고 공사를 못하게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하천은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유물이 아닌 공공의 재산입니다. 당장은 피해가 없으니 안일하게 방치하기보다는 관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효율적인 하천부지 관리를 위해서는 하천부지에 대한 무분별한 점용허가와 불법 점용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하천부지 점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무단 경작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홍보 및 계도 등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서는 하천부지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법 점용과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봉공원 관광안내소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설봉공원 관광안내소를 방문하여 안내소 내부와 그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관광안내소는 안내데스크, 수유실, 탕비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휠체어, 유모차,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관광안내소라는 곳은 해당 관광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편의와 정보를 제공하는 곳으로 관광객들이 찾기 쉬워야 하고 관광지에 대한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설봉공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야 할 안내소는 나무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고 안내소

앞에 있는 공원 안내도는 지나치게 커서 주변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안내도의 내용도 현재 공원의 형태와 달라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안내소 옆 매점은 시설이 낙후되고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 공원 이용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엔 미흡해 보였습니다.

설봉공원은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가장 많이 찾는 곳이며, 이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한 번씩 들리는 이천의 명소입니다.

설봉공원의 안내소는 정작 잘 보이지도 않고 실질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등 관광안내소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설봉공원 안내소의 조속한 개선 필요성과 함께 몇 가지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설봉공원 관광안내소가 관광안내와 편의 제공이라는 본래 기능에 더하여 이천시가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이천시를 널리 알리는 홍보 기능을 더한 복합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천시의 대표 농·특산물인 쌀, 복숭아, 고구마 등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방문객들에게 또 다른 구경거리를 제공하고 이천시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천시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와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스, 오비, 진로, 샘표, 하이닉스 등 대표 기업들의 제품 전시와 안내를 통해 기업과 상생하며 성장하는 이천시를 홍보하고, 나아가 기업 제품 구매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안내소 운영을 자활참여자와 시니어를 활용한다면 일자리 창출 효과와 사회적 의미도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설봉공원 관광안내소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안내소가 잘 보이도록 안내소 주변을 정리해야 하고 안내소의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의회

2024. 12. 20.(금)

제 3차 본회의

시 정 질 문

이천시의회 의원

김 하 식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의원
김하식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최근 대설로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하며 저는 항상 “미래를 내다보고, 시민과 소통하며, 현장을 발로 뛰어야 한다”는 생각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천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을 수행하실 때, 소통과 현장 중심의 시각을 가지시고, 멀리 내다보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이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준비했습니다. 제안 드리는 정책들이 이천시 발전에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발전과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재정투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도 이천시 본예산 규모는 1조 3,641억 원으로,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이천시 역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자체재원이 증가했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확보를 위해 공무원 여러분께서 꾸준히 노력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확대된 재정규모를 바탕으로, 역대 시장님들께서 시민의 행복 증진과 이천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셨고, 김정희 시장님께서도 새로운 이천, 함께 여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이천의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도로 등 도시기반 인프라 확충에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야 투자와 개발이 촉진되고, 이천이 가진 잠재력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사업을 제안 드리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마을과 마을 간 연결도로 확장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르면, 리도는 농촌지역 마을 간이나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도로로, 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촌지역의 생산·유통 활동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천시에는 총 428개의 통·리가 있습니다. 읍면지역에는 322개의 마을(행정리)이 있는데, 마을 간을 연결하는 도로는 폭이 좁아 교행이 어렵고 특히 농기계 운행 시 통행에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인근 여주와 안성을 보면 리간 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개통된 호법면 동산~주미 간 리도204호선처럼, 마을 간 도로 확장은 농촌지역이 넓은 이천시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보상 중인 농어촌도로 사업은 21건으로, 사업비는 총 1,132억 원 규모입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보상과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황조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도로에 대한 사업계획도 조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하이닉스 주변 도로 확장입니다.

부발 하이패스IC 연결도로가 착공되었고, 신하초교~가좌오거리 도시계획도로와 신하리 도시계획도로 확장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하이닉스 주변의 교통량이 분산되어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것입니다.

이와 함께, OB맥주(이마트후레쉬센터)사거리~가좌오거리 간 2차선 도로의 확장과 가좌리 경로당~북하교차로 간 마을안길 (가좌로103번길) 확장을 포함하여,

부발읍 아미리, 신하리 일원과 대월면 사동리 일원의 지역 간 도로망을 촘촘히 연결하면 하이닉스 주변 지역에 최적의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검토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남부권 균형발전정책 확대입니다.

이천시는 「중기발전·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장호원읍, 모가면, 설성면, 율면 등 4개 읍면을 균형발전지원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1개 읍면 당 연간 5억 원씩 5년간 총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모로는 균형발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기 기본계획사업, 농촌생활 개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기반시설 투자에서 발전도가 낮은 지역을 우선 배려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확대된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축제와 행사 개최를 위한 최적의 장소로 ‘진리뜰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23회 이천쌀문화축제가 지난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이천농업테마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는 방문객이 22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38% 증가하였고, 행사장 내 판매 총액도 15억 3천만 원으로 26% 증가했다고 합니다.

축제 준비를 위해 애쓰신 공무원, 관계 기관·단체, 자원 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을 대표하는 축제로는 산수유꽃축제, 도자기축제, 복숭아 축제, 쌀문화축제가 있습니다. 이들 축제는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개최되고 있지만, 오랜 기간 축제의 메인 무대였던 설봉공원은 이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으며, 대규모 행사장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진리뜰 개발을 제안합니다. 진리뜰은 여러 축제와 행사를 통합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 생각합니다.

진리뜰의 장점은 복하교 옆에 위치한 넓은 경작지로,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시도1호선과 국도42호선이 지나 교통이 편리하며, 이천 시내와 하이닉스 사이에 위치하여 상권과의 연계성이 좋습니다. 셔틀버스를 운행하더라도 이동 시간이 짧고, 평지여서 보행도 편리합니다.

다양한 시설과 연계도 가능합니다. 진리뜰 주변에는 복하천 수변공원과 중리천 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복하천 제3·4수변공원에 가족캠핑장, 물놀이시설, 테마가든, 잔디광장이 들어섰고 축구장, 야구장,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도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간 활용도 가능합니다. 수변공원 옆 둔치를 메인 행사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하천 건너편 둔치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징검다리를 설치하면 행사장과 주차장을 쉽게 오갈 수 있어 주차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향후 효양근린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진리뜰과 연계한 관광 코스로 더 다채롭고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뜰은 축제와 행사의 중심지이자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 개발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리뜰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한 시장님의 긍정적인 검토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효양근린공원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매년 효양산을 시민을 위한 특별한 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해왔습니다.

레포츠공원, 둘레길 조성, 특화된 복합개발, 휴식과 문화·여가공원 조성 등을 통해, 효양산이 설봉공원과는 또 다른 이천의 대표적인 공원이 되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2022년에는 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주관으로 효양산 관광자원 활용방안 연구용역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김경희 시장님께서도 “효양근린공원 조성사업”을 공약 사업으로 선정하시고, 485억 원 규모로 2027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내년에는 공원조성계획과 설계변경이 진행되고, 2026년까지 토지보상을 마친 후, 2027년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 70억 원이 편성되면서 시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27년까지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효양산이 편안한 여가와 휴식 공간이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특별한 공원으로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산성을 모티브로 한 공원 조성

경기도 오산의 독산성은 삼국시대에 축조된 산성으로, 복원 사업을 통해 역사적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효양산 역시 178미터의 높이로 독산과 비슷하며, 과거 산성이 존재했다는 기록과 삼국시대 유물도 출토되었습니다.

효양근린공원을 조성할 때, 산성을 현대적 감각으로 디자인 하여 지형에 맞게 성벽, 돌담, 한옥담을 조성한다면 이천의 역사적 매력을 되새기고, 효양산이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전망대와 전설 테마 콘텐츠

효양산에 이천의 사계절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하고, 성 안에는 효양산의 금송아지, 은혜 깊은 사슴, 화수분, 물명당 이야기 등 이천의 전설과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테마 콘텐츠를 현대적으로 구성한다면, 방문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제공하는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야간 관광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

통영의 남망산공원에 있는 디피랑 테마파크처럼, 화려한 미디어 쇼와 빛의 연출을 도입하면, 효양산은 밤에도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낮과 밤이 다른 매력을 지닌 공원으로 조성된다면 이천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악취 해결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이천시에는 한·육우 481농가(24,217두), 젖소 238농가(23,987두), 돼지 177농가(393,035두), 닭 113농가(3,223,002마리) 등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 지역을 제외한 전 읍면에서 가축이 사육되고 있으며, 특히 돼지 사육 농가는 남부권에 많이 분포되어 있지만, 다른 가축과 마찬가지로 전 지역에 돼지 축사가 있습니다.

인구 증가와 주거지 확장으로 인해 축산악취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과 민감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축산 농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축산악취 문제는 이천시가 해결해야 할 오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천시에서도 악취 저감제 공급, 악취 저감 및 예방시설 설치 지원, 환경개선제 지원, 분뇨처리시설 설치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축산악취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장기 과제입니다. 따라서 확실한 계획과 로드맵에 따라 꾸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천시의 축산악취 저감 사업은 도비보조사업 등 이전재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올해의 경우, 축산악취 저감제 공급사업은 전년 대비 1억 원 감액, 악취 저감 축사시설 개선사업은 작년 3억 원에서 올해 8천만 원으로 2억 원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다행히 2025년도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양돈농가 등에 대한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이 신설되어 3억 5천 6백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여전히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축산악취 저감 대책의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축산악취 문제는 도시 이미지, 인구 증가, 투자 유치 및 관광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천시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천시의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의회

2024. 12. 20.(금)
제 3차 본회의

시 정 질 문

이천시의회 의원
박 준 하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원 박준하입니다.

먼저 정치부터 경제, 환경,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까지 정말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를 힘들게 버텨내신 많은

시민분들에게 정말 수고 많으셨고,

모두 함께 우리 이천시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자신의
자리를 꿋꿋이 지켜주셔서 고맙다는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이 자리를 빌어 전합니다.

저도 맡은 바 역할에 늘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는 말씀드리
겠습니다.

오늘은 김경희 시장님과 집행부에 우리 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한 비판이
아닌,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제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정의 현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준비한 질문인 만큼,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민분들의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사업들은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별도로 선정하여 시민들께서 그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천시에서 추진되는 수많은 사업들을 살펴보다 보면 현재 담당자가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되었거나, 이미 추진되고 있던 사업인 경우가 있어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주요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분명하고 확실하게 운영되어야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이 미비해 보입니다.

「이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정책실명제 관리 및 공개) 제4항을 보면 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총괄부서에서 통보된 중점관리 대상사업과 추진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누리집 행정정보공개 정책실명제 페이지는 2021년 6월에 멈춰 있어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보여 집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비공개 대상 정보로 왜 정책실명제가 제대로 실행이 안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장님께서서는 향후 정책실명제에 대해 어떠한 운영방침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서는 현장중심의 시정을 목표로 14개 읍면동을 순회하시고 시민의 말씀을 경청하시면서, 그 지역의 열망과 또는 일상의 불편을 해소하시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도대체 이런 사업은 그 지역 누가 제안했는지 궁금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마지못해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나 민간보조금은 ‘예산 낭비는 아닌가?’, ‘어려운 예산상황에 꼭 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정책실명제’ 처럼 반대로 ‘시민제안 실명제’를 건의 드립니다. 어떤 시민 분들이 어떤 제안을 시장님과 집행부에 건의하여 추진되게 되었는지를 기록에 남겨주신다면 특혜 시비나 오해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우리 시의 대응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제도는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균형을 위하여 국세 중 일정액을 법정화하여 자치단체별 재정력을 반영하여 산정,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 행정의 기반이 되는 재원을 확보하는 수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방세가 기본이나, 지역 간 세원 불균형이 심한 상황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지방세수로 충당하는 재정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 편중에 따른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재원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재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적인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을 기초로 하여 객관적 기준의 통계와 산식으로 산정하고, 재정수요액 대비 재정수입액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부족액을 기초로 매년 교부하게 되는데요. 2025년부터 보통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 산정기준이 변경되어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여쭙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서는 공공의료, 생활인구, 기회발전특구, 출산장려, 저출생지원, 차상위계층,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부분에서 지자체 노력이 더 필요하게 되었고, 우리 시 지역행사나 축제성 경비 비중에 따른 페널티는 폐지되었습니다.

이어 부동산 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 재정투자를 유도하도록 교부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저출생투자비율, 영유아 수 비율, 공공보육 이용률, 지역돌봄서비스 운영지수가 새롭게 반영되었습니다.

이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면 ‘25년에는 보통교부세, ‘26년에는 부동산교부세 산정기준에 반영이 될 것인데 우리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시장님께서서는 향후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어떠한 대응 방침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민관협력 투자금융 설치에 관한 제안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주요 조건은 첫째, 규제완화로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둘째,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입니다. 우수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양질의 인적자원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가 과학고
유치 경쟁을 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셋째, 효율적인 인프라입니다. SOC(사회간접자본)가 구축되어
있고 지식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넷째, 민·관이 협력해야 합니다.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
되고, 갈등이 적으며, 행정의 기업 지원 시스템과 기업 민원에
대한 원스톱 처리 시스템이 운영되어 기업의 애로사항이 즉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투자 유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외국인 투자
유치가 늘어나고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살아납니다.

여섯째, 우수한 입지 조건으로 교통의 요충지이어야 합니다. 이천시
처럼 기업 활동에 유리한 지리적 여건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천시는 이 많은 조건에서 꽤나 많은 부분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창업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며 외국 기업들도 매력을 느끼고 진입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역 발전과 경제 활력에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일자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부는 자체의 투자 사업 추진에 있어 주요 어려움과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재원과 전문 인력 및 기술의 부족이 가장 큼니다. 많은 지자체가 투자 사업을 위한 충분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투자 분야 전문 인력의 확보가 어렵습니다. 규제 및 행정적 장벽이 기초단체의 자체 사업을 어렵게 하고, 투자의 효율성 문제나 지역 요구에 맞는 유연한 대응도 사업을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로 인해 장기적 계획 수립의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보다 단기적 해결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시에 ‘민관협력 투자금융’을 설치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우리 이천시에 위치하고 있는 유망기업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재원 공급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천시 민관협력 투자금융을 만들어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과 창업·벤처 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융의 자본금 500억 원 정도를 이천시가 출자하고, 민간자금 1000억 원을 보태 모(母)펀드 자금으로 조성합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지역 기업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제공하면서, 이천시 핵심 전략(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UAM, 드론, 방산, 농업, 스포츠 등) 정책 맞춤형 지역 기업들의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 이전 및 세외수입 다각화로 이천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시장님께서서는 ‘민관협력 투자금융’ 설치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은 3가지 장기적인 관점(1. 인구 구성 및 지방 소멸, 2. 반도체 경기와 지역 산업 생태계, 3. 장기 도시발전 전략)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천시 균형발전과 균형발전기금 설치 계획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시의 지역 불균형 상황을 보면 첫째, 이천시를 포함한 경기 동부권에는 4년제 대학 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교육 시설과 학습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찾아 중등 과정부터 대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해 교육 인프라가 분명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둘째, 수도권정비계획법, 팔당특별대책지역규제, 군사시설보호법으로 인한 규제,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공장 신설이나 증축 등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이 제한되어 있어 경제 발전에 제약이 있습니다.

셋째, 앞서 언급한 규제로 인해 현대엘리베이터, 칩팩코리아, 현대오트넷, 듀폰, CJ제일제당 이천공장 등 우수한 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기업 이탈이 발생합니다.

넷째, SK하이닉스 본사가 이천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의 정책적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다섯째, 이천시는 서울에서 가까워 지리적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이천시는 교육, 경제, 산업 등 여러 측면에서 불균형적인 발전을 겪고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이천시는 지역 특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지역 균형발전의 사업과 예산 규모로는 불균형을 타개하기 어렵습니다.

균형발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염두 한다면, 작고 소외된 지역 주민의 삶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금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천시는 인구, 경제, 사회적 자원의 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으며, 특히 남부권은 예산과 사업적으로도 비교적 소외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부권 발전을 위해 예산 일부를 기금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지역균형발전기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로 대전광역시의 지역균형발전기금은 2019년에 「지역균형 발전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기금의 재원은 시 일반회계 전입금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환원금을 통해 조성되었습니다. 초기에는 3년 동안 총 350억 원 규모로 설정하였으며, 이후 2022년까지 매년 100억 원씩 추가하여 총 400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활용하여 주민 생활 기반 시설의 불균형 해소에 중점을 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 운용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드는 바, 시장님께서 향후 남부권 시민들을 위해 어떠한 발전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운용 중 몇 가지 항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 항목 중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 추진비’ 입니다.

시장님, 우리 시 2025년 업무 추진비는 너무 많습니다. 1년 전 2024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우리시의 상황이 ‘비상재정 상황’ 임을 말씀하셨고, 고통분담을 통한 결과물이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 일괄적으로 업무추진비를 10~15%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 정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2025년 법인지방세 수입이 늘어난다고 해서 원래 쓰던 업무추진비를 최대한으로, 없던 것까지 편성하는 것은 시민들께서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주실 것 같진 않습니다.

올해 고통분담이라던 2024년 업무추진비를 분석하기 위해 지방재정365와 2024년 이천시 재정공시를 보면 동종·유사 시·군이 85.2%, 83.6%인 것에 비해 우리 이천시는 90.9%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또한 동종·유사 시·군보다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행사·축제성 경비입니다. 편성 비율이 0.65%, 0.63%인 것에 비해 1.03%로 거의 두 배 수준입니다.

또 지방재정통합공개 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대상인원 한 명당 공무원 일·숙직비는 타시군은 66천 원에서 74천 원인 반면에 214천 원으로 거의 세 배나 됩니다.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본적 지출보다는 지방보조사업 및 행사, 축제 사업의 비중이 매년 증가 추세로 늘고 있고, 유형 평균 및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 예산 규모에 적합한 지방보조금 사업의 한도액을 설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확대 편성되어온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사업의 유지 여부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심층적이고 실효성 있는 심의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연 이러한 항목들이 너무 과한 재정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의회

2024. 12. 20.(금)

제 3차 본회의

시 정 질 문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임 진 모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임진모
입니다.

올 한해를 되돌아보면, 저는 이천의
여러 계층과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고 그 분들과 함께 많은 고민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으로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느꼈으며, 더 소통하고 더 생각하며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의원이 돼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박명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김정희 시장님과 이천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시민 분들이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이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난관이 있다면 함께 힘을 합쳐 극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올해보다 나은 내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저 또한 시민과
이천시만 바라보며 열심히 뛰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는 언론인,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준비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공공형 골프장 건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열고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용 중에 눈길을 끄는 사항이 있었는데, 바로 “골프 대중화 시대 만들기 프로젝트” 였습니다.

내용인즉슨, 정부에서 골프장 수급 불균형에 따른 과도한 이용료 문제 해소를 위해 쓰레기 매립장 등 지자체의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공공형 골프장 조성을 추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골프협회가 실시한 2023년도 한국골프지표 조사에 따르면 골프 활동 참가자수(20세~70세 미만)는 624만 명으로, 우리나라 20세 이상 인구 중 16.9%가 2023년 한 해 동안 골프 활동(골프장, 골프연습장, 실내스크린)을 1회 이상 참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로 골프인구가 늘었고, 젊은 세대와 여성 중심으로 신규 골프 수요 증가, 사회적 인식의 개선, 스크린 골프장 증가 등 접근성 향상으로 골프장에 대한 수요가 늘었으나 고비용과 골프장 공급확대의 한계, 공공체육시설의 부재 등의 문제가 여전히 골프 대중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천에는 총 13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자리하고 있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천시민들이 비용과 예약문제로 다른 지방 골프장을 이용하는 형편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충주시에서는 시민골프장 2개소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난 10월에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와 울산광역시에서도 쓰레기매립장 부지 등을 활용한 공공골프장 조성을 검토하는 등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도 정부의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 맞춰, 공공형 골프장 건립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골프를 즐기며 여가시간을 보내고 친목과 건강을 도모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공공형 골프장을 건립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비용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골프 대중화와 스포츠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골프장 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식당 등 주변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골프장 운영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관리비용 또한 골프장 운영 수입으로 충당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초기 투자비용이 크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스포츠진흥 기본 계획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개소 당 25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입지와 조성규모에 따라 사업비는 변동가능성이 있겠지만, 이천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사업인 증포동 체육공원 400억, 스포츠 콤플렉스 450억, 북부권 체육공원 418억 등과 비교해 보면, 부담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천시가 중장기 재정운용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한다면 재원확보는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확보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비 부담액은 줄어든 수 있을 것입니다.

증가하는 골프수요 충족 및 스포츠 복지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이천시 공공형 골프장 건립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아트홀 대관 체계 개선 및 시민만족도 향상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천아트홀은 2009년에 개관하여 이천시가 직접 운영하다가
2021년 이천문화재단이 설립된 뒤부터는 문화재단에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천아트홀의 시설은 크게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 및 규칙에 따라, 대관신청을 통해 필요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획공연이나 전문 예술단체 또는 회사 등의 대관공연을
제외하면, 시설대관은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나 일반 시민들이
대부분으로, 주 사용자는 이천시민입니다.

그런데, 아트홀 시설을 대관해서 사용했던 시민들로부터
불멘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 사용 신청부분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전문
용어로 표기된 부분이 많아서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
우며,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시설·장비가 제대로 신청되지 않아서
막상 시설을 이용할 때 직원과 마찰이 생기고, 장비 운용을
담당하는 분들의 태도에 감정이 상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공공시설은 시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공무원이든
재단 직원이든 간에 시민에게 친절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천시가 문화재단과 함께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분화된 대관선택 사항을 조정하고 대관신청 시, 대관 목적
및 성격에 맞게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 업무 담당자의 서비스 마인드 제고가 필요합니다.

아트홀 시설 사용의 편리성 제고 및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과 개선 가능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청 직원주차장 및 기숙사 확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과 공무원 등 이천시에 소속된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시청사 직원 주차장과 기숙사 확충입니다.

이천시 공무원 중 본청 인원은 736명(정원 기준)입니다. 농업 기술센터와 보건소, 아트홀이 시청사와 인접해 있고 시청사 입주 기관단체 소속 인원까지 감안하면, 행정타운 내 근무인원은 800명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사의 공식적인 직원주차장은 222면입니다. 물론 아트홀 주차장,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차량등록과 주차장도 있지만,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과 함께 사용하는 터라, 직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행사라도 있는 날이면, 그나마 이용했던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못하여 시청 앞 대로변까지 주차를 하고 있으며, 행정타운 내 도로에는 항상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불편과 사고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뿐만 아니라, 시청을 찾아오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직원주차장은 조속히 확충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직원 기숙사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천시 직원 기숙사는 시청사의 부속관과 관고동행정복지센터 내 다울관 등 2개소로 총 21개실 36명 규모입니다. 입주 자격은 신규공무원과 원거리 출퇴근자, 경제여건 상 필요한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는 62명입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신규공무원들은 임용의 기쁨과 함께 살집에 대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신규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전·월세가 비싸 집구하기가 만만치 않은 현실 등을 감안한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주거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숙사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퇴근 후에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현재 2인 1실(2인 이용 15실/총 21실) 인 기숙사 체계를 1인 1실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 속에서 직원들의 업무능률은 향상되고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시민들께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원주차장과 기숙사 확충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경쟁력 강화 및 인재육성 지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 과학고를 유치하려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이천의 교육 인프라 확충과 우수 인재 양성을 통해 이천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과학고와는 별개로 이천시 자체적으로 우수 인재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학력향상 등 이천의 전반적인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더불어 인재육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4 ~ 6기 때에는 연간 15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각 중·고등학교별로 수준별 교과 프로그램, 맞춤형 보충수업, 논술반, 특강반 운영과 같은 성적 및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인재육성 재정지원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현재는 학교특색 교육활동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연간 약 19억 원 정도를 학교별 특색 교육활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진로체험, 문화·예술체육 활동, 역사교육, 창의적 사고 배양 등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사업들에 예산이 쓰여 지고 있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175억 원 규모로 전년대비 19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주로 학교 시설환경 개선과 공교육 지원 사업 부문 예산액이 늘었습니다.

교육지원예산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방향에 가치와 중점을 두느냐의 문제일 것 같기도 합니다. 논술아카데미 운영 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500만 원이 줄어든 1천 5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특색 교육활동도 중요하지만,
명문대를 포함한 대학진학을 목표로 성적향상을 원하는
학생들, 경제사정으로 학원 등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면서, 지금의 실력과 성적을 한 단계
높이고 원하는 진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이천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기
위하여, 학교별로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또는 유명
학원 강사를 초빙한 통합 특강반 운영 등의 인재육성 지원
사업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의회

2024. 12. 20.(금)
제 3차 본회의

시 정 질 문

이천시의회 의원
송 옥 란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보다 더 나쁘다.’ 라는

문장처럼 저는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을 통해 이천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난 2년간 이천시 곳곳에서 의정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으로 이천시를 돌아보며, 따뜻하고
정의로운 시의원 송옥란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민원인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파악한 민원 해결 방안과 이천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서는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 저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사후 관리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천시 창전동에 위치한 먹자골목은 2020년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과 쓰레기 등으로 어두운 뒷골목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도시재생사업으로 간판, 조명, 도로 등의 경관이 개선되어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즐겨 찾는 이천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에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합동 개최한 안심도로 공모전에서 안심 도로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이천시의 구도심 재생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2024년도 현재의 먹자골목은 차 없는 거리를 기본 테마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통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인도에는 방문객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상가들의 입간판과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많은 민원으로 먹자골목의 사후 관리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지만, 먹자골목이라는 하나의 장소에 여러 부서가 업무를 분담하고 있어 효율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을 전담한 팀은 있지만, 사업 완료 후 전담하여 관리하는 부서가 부재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있지만 사후 관리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관리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향후 관고동, 창전동 등의 전통적인 이천시 구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매우 시급합니다.

도시재생사업 후에도 먹자골목의 사례처럼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는 물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빠르게 쇠퇴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손해가 될 것입니다.

향후,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며 이를 근거로 철저한 사후 관리를 위해 전담 부서 설치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쌀 수출 확대 전략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천쌀 ‘알찬미’는 약 178.7톤이 미국으로 수출되었습니다.

이천시는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와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천쌀은 계약재배를 통해 100% 수매제를 실시함으로써 농민은 판매 걱정 없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천시와 농협이 마케팅, 브랜드 관리,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천쌀이 최고의 브랜드 쌀로 인식되어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한편, 서양인들은 글루텐을 분해할 수 없는 ‘셀리악병’이 흔하며, 건강 분야의 관심으로 ‘글루텐프리’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루텐프리’ 시장규모는 2024년 기준 72억 달러이고 2032년까지 138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단순한 쌀 수출에 머물지 말고,
‘글루텐프리’ 식품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성이 높은 ‘글루
텐프리’ 인증을 받은 떡, 과자, 술 등의 쌀 가공식품 수출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더불어 이천쌀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무촌리 근린공원조성사업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9년 10월 ‘지자체가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00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반영되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지정 후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산61번지 일원은 2003년도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따라 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일몰 직전 지난해
2023년에 실시계획인가를 통한 토지보상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무촌근린공원 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첫째, 재정적 측면입니다.

지금까지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예산확보였습니다. 하지만 4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은 현재도 미확보 상태이며 앞으로도 확실한 보장이 어렵습니다. 또한, 20년 동안 해당 부지의 지가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사업의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둘째, 해당 지역 주변은 인가(人家)도 적으며 도보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위치입니다.

게다가, 근방에는 이미 복하천 수변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효양근린공원 또한 조성 예정이라, 근린공원의 본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특히, 25년 동안 공익을 위해 양해하였던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부득이 사업을 강행하다가 또다시 사업이 무효화 될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한 2차 피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따라서, 무촌근린공원 건립 계획을 재검토하여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과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 71~84에 해당하면서 인지 정서 사회 적응 능력이 낮은 사람을 말하며, 전국적으로 약 700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자리 잡고 있어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어린 시절 조기에 발견하여 당사자의 특성에 맞는 치료를 제공하면 인지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나, 조기 개입이 부재할 경우 학령기에 교우 관계 및 학업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천시 경계선 지능인들이 외부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조금 느리더라도 천천히

나아갈 수 있도록 평생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으며,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의 건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천시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평생 교육 및 처우 개선 계획 및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 및 치료 지원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7개 분야에서 시기별로 총 8회에 걸쳐 질병을 진단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중 발달 검사 결과 “심화평가권고” 판정을 받은 경우, “발달정밀검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발달 상태를 진단받을 수 있으며, 검사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을 이천시 보건소에 제출하면 검사비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조기 치료가 효과적이며, 발달 치료는 특성상 장기간 소요되어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치료비 지원 또한 절실한 상황입니다.

영유아기는 일생 중 가장 빠른 성장과 발달을 보이는 시기
이므로, 조기에 문제를 파악하여 진단, 치료, 교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다른 질환들과는 달리, 발달
이상은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중에 경계선 지능
및 ADHD 등은 조기에 발견하여 약물 치료 및 적절한 인지
능력 향상 교육을 시행하면 경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천시가 ‘발달정밀검사’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실제로 발달에 문제가 있는 영유아들의
치료비까지 지원하는 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성과평가 방식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간위탁은 공무원들의 채용하는 문제들과 관련된 비용을 줄여
공공부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초단체에서는 상당 부분 민간위탁을 통해
공공의 수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수탁기관에서 권한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끝난 후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0조에 따르면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 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천시의회 제출된 성과평가표의 평가지표를 보았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시로 지난 제249회 임시회 상정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운영성과표를 보면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의 평가 지표가 있으며, 또다시 7가지의 세부 항목으로 나뉘게 됩니다. 예산운영의 적절성, 물품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정성적 지표만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36개의 민간위탁 성과평가가 있었지만 불과 9건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은 계획수립, 실행,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의 단계를 거치는데 이중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은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추진한 사무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검토하고 위탁사무 개선에 활용됩니다.

따라서 적절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지표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성과평가를 위해 성과평가자들을 단순히 담당자, 팀장, 과장에만 한정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 또는 외부용역을 통해 적절한 정성적, 정량적 지표들을 적절히 혼합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철저하게 성과평가 게시를 관리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일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업무일몰제’란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업무가 환경 및 주변 여건이 변하여, 실효성이 현저히 저하되어 실익이 없는 경우 이를 폐지하여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는 제도입니다.

현재 이천시는 2019년 제정된 규정에 따라 업무일몰제를 시행 중이며, 실적은 2019년 12건, 2020년 3건, 2023년 2건으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9년 이후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현대사회의 특징은 하루하루 삶의 추세가 바뀌며, 시민들의 요구 또한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획기적이며 파급력이 높은 시책도 매년 해를 거듭하다 보면 실효성이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실효성이 없고, 단순하게 반복되는 사업을 과감하게 일몰 대상으로 건의하고, 업무 일몰에 그치지 않고, 현재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업무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는 순환구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업무총괄 부서는 수동적으로 업무일몰을 각 부서에 맡기기보다는, 업무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일몰 대상 업무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법규가 신규로 제정되고 이에 따라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 시행규칙, 조례 등이 제정되고 여기에서 무수히 많은 업무가 파생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제한된 인력과 재원으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업무일몰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업무일몰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이루어낸 눈부신 경제성장의 이면에 가려져서 도덕적 해이와 물질만능주의 등 사회 전반적인 병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율의 증가나 가족해체, 가정폭력 등의 심각한 가정 문제와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및 학교폭력 등의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천시에서는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4년 동안 평생학습교육 인성함양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청소년들에게 인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인성 가치관 정립을 도와 건강한 성장과 성숙한 시민으로서 성장하도록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24년도 경기도 일몰 사업으로 더 이상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통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손쉽게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성교육은 그 어디에서도 배우기 어려우며, 그 중요성에 대한 강조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성 중심의 인성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 학생들의 인성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하여 평생교육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경기도 일몰사업으로 사라진 인성함양프로그램을 이천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천시민의 인성함양을 위한 시장님의 방안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 세대를 위한 영유아·어린이 문화 콘텐츠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 증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2023년도 전국 출생률 통계에 따르면 이천시는 1,160명의 신생아가 출생하였으며, 하이닉스 및 대규모 군부대 등의 젊은 세대 유입 영향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중에 7번째로 높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천시의 영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공연, 행사, 축제, 전시의 비율은 이천시 문화재단 프로그램의 각각 6%, 4%, 1%, 1%에 불과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의 문화 향유 여건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2025년도 이천시 본예산 기준 문화 및 관광 예산은 580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영유아 및 어린이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예산편성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천 관내에 어린이들의 문화생활 여건이 개선되면, 가족 단위의 시민들이 관내에서 여가생활 및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한 지역 상권 경제의 활성화 같은 부수적인 효과가 뒤따라오게 됩니다.

현재 이천시에서 주말을 보내기 위한 문화생활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영유아 및 어린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이 인근 하남 스타필드 등 관외로 유출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영유아 및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 축제, 행사 등의 문화생활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천시 관내 동물보호센터 설립 관련 질문입니다.

100세 시대와 미혼 인구의 증가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반려동물 수도 증가하여 반려 인구 1천만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천시의 반려 인구는 약 1만 1천 명으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관련 산업과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반려 인구의 증가와 함께 유기 동물 또한 비례하여 증가하는 어두운 측면도 존재합니다. 매년 반려동물의 유기 사례가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천시에서는 유기된 동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이천시는 동물보호센터를 관외 여주시에 위치한 위더스 동물센터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 복지의 수준과 사회적 참여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는 접근성이 좋은 관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물들이 신속하게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여 입양, 자원봉사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문 인력에 의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법적 규제와 사회적 책임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를 현재 조성 중인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설치하여 직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반려동물과 공존은 물론 동물복지 실현과 도시-농촌 간 상생발전을 위해 약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울면 월포리에 22,000평 규모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동물 보호와 복지, 운영 효율성, 지역사회와의 연계, 체계적인 구축과 관리로 동물복지 향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6차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6차 산업이란 1차 산업인 농산물 생산을 기반으로, 농업인이 직접 제조·가공(2차 산업)하여 제품을 만들고, 유통·판매 및 체험·관광(3차 산업) 등 서비스업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촌 융복합 산업입니다.

이천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함께 있는 전통적인 도농 복합도시이며, 특히 2024년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한 전국 도농복합도시 중 삶의 질 지수 평가 결과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천시는 청년인구의 높은 비율, 편리한 교통, 최상급의 특산품 등의 여건으로 6차 산업의 활성화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1차 산업 중심의 특산물 생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며, 도-농의 상생발전과 더 나아가 급박하게 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6차 산업을 활성화해 농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천시 6차 산업 인증 경영체는 15곳뿐이며, 안타깝게도 현재 이천시에서 따로 예산 편성하여 진행하는 지원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이천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6차 산업의 컨설팅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이천시의 6차 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예산 제로베이스 편성방식 도입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 제250회 제2차 이천시의회 정례회에서 내년 이천시 살림살이 계획을 세운 2025년도 본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현재 이천시 예산편성 기준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 비율만큼 증액하거나 감액하고, 추가로 신설하는 예산편성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정 예산부분에 대한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기준예산에서 확장된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이란 전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점증주의 예산을 완전히 탈피하여 모든 예산을 제로베이스인 원점에서 총체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 뒤,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기존에 심의하여 편성한 예산이라도 성과가 낮거나 중복된다면 폐지하거나 축소시키고, 대신 신규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시민들에게 더 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예산편성 기법을 도입하여 계속비와 이월사업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비 사업이라도 기존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성과평가 결과가 낮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월사업의 경우 이월사유가 공기 부족이라는 사유 등으로 이월사업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한 공기를 예측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 예산심의를 통해 다음년도 예산안 삭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성과가 낮은 부분에 대한 것을 과감한 조정과 기존 관행적인 사업의 과감한 탈피로 합리적·효율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로베이스 예산기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